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5년 11월 2일(일) 제1562호

## 온누리 40년, 다음세대와 공유할 신앙의 유산

미래성장분과위원회, 온누리 미래&가족 축제 개최  
5일 양재 사랑홀, 6~7일 유튜브 채널, 8일 양재 기쁨홀

제3회 온누리 미래&가족 축제(OFFC)가 오는 11월 5~8일 '온누리 40년, 다음세대와 공유할 신앙의 유산'을 주제로 막 오른다. 11월 5일(수) 오픈예배, 6~7일(목~금) 사전강의, 8일(토) 본 행사가 이어진다.

오픈예배는 11월 5일(수) 오후 7시 30분 양재온누리교회 사랑홀에서 드린다. 강부호 목사가 '믿음의 본질로'를 주제로 말씀을 전한다. 사전강의는 11월 6일(목)과 7일(금) 오후 7시 30분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한다. 김지연 교수(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장선범 목사(양재온누리교회) '행동하는 크리스천으로'를 주제로 강의한다. 본 행사는 11월 8일(토) 오후 2시 양재온누리교회 기쁨홀에서 열린다. 주제강의, 패널토의, 발표 및 시상 등을 한다. 주제강의는 이

재훈 위임목사 '교회가 지켜야 할 신앙의 본질', 박태성 교수(미래성장위원회 위원) '데이터와 설문분석으로 본 온누리교회의 미래'를 주제로 한다.

패널토의는 '온누리가 남겨야 할 믿음의 유산과 다음세대를 위한 준비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한다. 당회서기 이인용 장로가 사회를 보고, 하선희 대표(한국 콜스 펠로우즈), 민준호 대표(IJM코리아), 김경훈 집사(양재 2000 선교), 이종호 형제(SNS청년부 대표 MC)가 패널로 참석한다.

온누리 미래&가족 축제(OFFC) 참석을 희망하는 성도들은 오른쪽 QR코드로 신청하면 된다. 참석자 자녀를 대상으로 오후 2시부터 4시 40분까지 '성가치관 교육'도 한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Onnuri Future & Family Celebration  
2025. 11. 05 (Wed) - 11. 08 (Sat)

제3회  
**OFFC**  
**온누리 미래 & 가족 축제**

온누리 40년, 다음 세대와 공유할  
신앙의 유산

오픈예배  
2025. 11. 05 (수)  
오후 7:30 ~ 9:30  
양재캠퍼스 사랑홀

사전강의 1·2  
2025. 11. 06/07 (목/금)  
오후 7:30 ~ 8:00  
온누리교회 Youtube

주제강의 · 발표 및 행사 · 패널토의  
**2025. 11. 08 (토)**  
오후 2:00 ~ 5:00  
양재캠퍼스 기쁨홀

→신청하기

## 이재훈 위임목사, 한국기독교대상 '목회 부문' 수상



### 대학총장포럼 명예회원 및 자문위원으로도 추대

이재훈 위임목사가 지난 10월 27일(월) 한국대학총장포럼이 주최하는 제2회 한국기독교대상에서 '목회 부문'을 수상했다. 한국 교회를 모범적으로 이끌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

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국대학총장포럼 명예회원 및 자문위원으로도 추대되었다.

이날 이재훈 위임목사는 "부족하고 자격 없는 사람에게 귀한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온누리교회가 한국 교회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고 헌신하겠다"고 인사했다.

한국기독교대상은 초교파적으로 복음적 신앙을 고백하는 전국 전·현직 대학총장들의 모임인 '한국대학총장포럼'이 한국 교회 리더들을 격려하기 위해 지난 2024년 제정했다. 제2회 한국기독교대상에서는 한국대학총장포럼 시상위원회가 48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3회에 걸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확정했다. 목회부문 이재훈 위임목사, 교육부문 주승중 목사(주안교회), 선교부문 여주봉 목사(포도나무교회), 사회봉사부문 최성은 목사(남서울교회), 특별목양부문 장창수 목사(대명교회)가 수상했다.

/ 홍하영 기자

## 2026 온누리교회 차세대 교사 모집

'2026 온누리교회 차세대 교사'를 11월 8일(토)부터 11월 16일(일)까지 모집한다. 현재 차세대 교사 128명, 사랑부 교사 40명이 더 필요하다.

온누리교회 차세대 교사로 섬기기를 희망하는 성도들은 소속 공동체 담당목사에게 추천을 요청한 다음, 온누리교회 홈페이지 배너(11월 8일 공개)를 클릭해서 신청하면 된다. 온누리교회 등록교인, 세례교인, 공동체 순예배 참석 중인 성도가 대상이다.

차세대 교사 모집 기간 온누리교회 예배에 서는 차세대 교사들이 간증과 특수를 한다.

문의: 서빙고 02-3215-3521

양재 및 도곡 02-570-7436

서빙고 사랑부 02-3215-3263

양재 사랑부 02-570-7349

/ 홍하영 기자

## 11월 16일까지 '2025 엔젤트리' 사연 신청

### 온누리교회 홈페이지, 각 캠퍼스 목회행정실

2025 엔젤트리 사연 신청을 11월 16일(일)까지 받는다. 온누리교회 홈페이지나 각 캠퍼스 목회행정실에 비치된 사연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엔젤트리 사연 신청서에는 듣고 싶은 이웃의 사연과 연락처, 정확한 도로명 주소, 전하고 싶은 선물 등을 꼼꼼하게 기록해야 한다. 신청자 이름, 소속 공동체 및 다락방, 연락처도 함께 적어야 한다. 이웃들에게 전달할 선물

은 5만 원 이하(꽃, 음식, 현금 금지)여야 한다. 후원이나 기부도 가능하다. 후원금은 아래 계좌번호로 입금하면 된다.

2025 엔젤트리 사연은 11월 22일(토)부터 국내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 로비에 전시한다. 캠퍼스는 상황에 맞춰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계좌번호: 하나은행 573-910007-03004(온누리교회 엔젤트리)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 남양주온누리교회 창립 21주년

남양주온누리교회 창립 21주년 감사예배를 11월 2일(일) 오전 9시와 11시 30분 본당에서 드린다. 반대섭 목사(남양주온누리교회 담당)가 설교한다.

한편 남양주온누리교회는 지난 11월 1일(토) 창립 21주년을 기념하며 '가을을 이어가다'를 주제로 성도들과 전도대상자 및 지역주민을 초대해 기념 음악회를 개최했다.

## 추수감사절 사르밈 프로젝트 2억 6천만 원 현금, 나눔대상자 2,567명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추수감사절 '사르밈 프로젝트'에 2억 6천만 원을 현금하고, 나눔대상자 2,567명(개인과 기관)을 선정했다(10월 29일 기준). 11월 첫째 주부터 나눔대상자들에게 감사의 쌀과 성경을 자택으로 배송할 예정이다.

Come, Lord Jesus!  
Revelation 22:20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 주일강단



리야드 카시스 박사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입니다. 여러분도 이 본문을 여러 번 읽고 마주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중동 사람의 관점에서 전하고 싶습니다.

## 첫 번째 사람, '흥분한 추종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세 명의 사람과 마주칩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마주했을 때 은혜나 축복을 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오히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고 요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베푸심을 경험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지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흥분한 추종자'입니다. 예화 하나를 말씀 드립니다. 아랍인 한 명이 미국에 가서 친구들에게 "미국에서 음식을 주문하려면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나?"라며 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음식을 주문하면 쉽다면서 알려 준 메뉴가 햄버거, 감자튀김, 콜라였습니다. 그 아랍인은 첫 주와 둘째 주에 계속 같은 음식만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텍사스는 스테이크가 유명하다던데, 한번 주문해 볼까?'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당에 가서 "스테이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문을 받던 서비스 담당자가 "어떤 스테이크를, 어떤 무게로, 어떻게 구워 드릴까요? 사이드 메뉴는 무엇으로 드릴까요?"라고 물었는데 다 못 알아들었다고 합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잠깐 침묵을 지키다가 "햄버거, 감자튀김, 콜라"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난 첫 번째 사람은 인생에서 여러 가지 선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선택하고자 했습니다. 그 때문에 굉장히 신이 나고, 흥분했습니다. 그의 소망을 예수님께 먼저 다가가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어디

를 가시든지 따라 가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만일 번성을 찾고자 하면은 나와 함께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여우에 대해서, 하늘의 새에 대해서 표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우는 암몬 사람들의 교활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는 로마 권력의 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권력, 번영, 그리고 교활함을 나에게서 발견할 수 없다. 내 제자에게서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너는 나를 따를 준비가 되었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열정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던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란의 '메디 디바(Mehdi Dibaj)'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인하여 이란 감옥에서 9년을 보냈습니다. 이슬람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습니 다. 1년 후에 그는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그해 그의 딸 생일 파티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당국이 살해된 그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이슬람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동안 그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저는 기적의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지 45년 되었습니다. 그분의 자비에 응답해서 제 자신을 부인하고, 온전히 자신을 내어 드리는 제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설령 제 몸을 죽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흥분을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으라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 두 번째 사람, '헌신적인 추종자'

두 번째 사람은 '헌신적인 추종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기독교인의 사역은 사람들이 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향해야 합니다. 선교사를 전 세계로 파송하는 것은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께 "제가 먼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만일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그는 이 길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버지를 장사하기 위해 그와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를 장사하는 것은 몇 시간밖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중동에서 장사하는 일은 빠른 시간 안에 해야 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장사하는 것은 그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이 문맥에서 봤을 때는 그분의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요청하시는 예수님

누가복음 9:57~62

"이 세 사람의 만남의 끝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는 형태로 남겨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말씀을 읽거나 듣는 우리가 스스로 응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어린아이를 보면 귀엽고 사랑스러움을 이야기합니다. 아랍어에서는 "내 딸아, 네가 얼마나 귀여운 지. 그러나 너는 나를 장례 치러 줘야 된다"고 표현합니다. 내 딸과 아들이 너무 사랑스러우면,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돌봐 줄 사람이기를 바란다. 내 노년에 품위와 존경을 가지고 나를 장례해 주기를 바란다"고 표현합니다.

그는 아버지를 단순히 물어 준다는 것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아니라 공동체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었습니다. 동료들의 압력에 굴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가족과 공동체에 헌신하는 내 책임을 다하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이 문제를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하는 긴급성에 응답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1860년 레바논에서 무슬림과 기독교인 사이에 상당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당시 5천~1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많은 교회와 집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들은 무슬림들에 의해서 살해되었습니다. 무슬림들은 기독교인들에게 고문과 죽음 대신 신앙을 포기할 수 있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죽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 나라에서 헌신적인 제자들의 비슷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반복적으로 듣습니다. 위험한 국가에서 이러한 헌신을 보여주는 많은 한국 선교사도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4~25절 말씀을 헌신적인 추종자들과 제자들을 통해 경험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게 될 것이다'"(마 16:24-25).

이 박해와 핍박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올해 만들어진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일곱 명의 기독교인 중에서 한 명이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다섯 명의 기독교인 중에서 한 명이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다섯 명 중에 둘이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예배의 자유가 있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핍박과 박해를 당하는 기독교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 세 번째 사람, '주저하는 추종자'

세 번째 사람은 '주저하는 추종자'입니다. 그는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구하고 싶어 했

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작별을 고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님은 왜 그렇게 엄하게 그가 하고자 하는 것을 막아서면 서까지 작별을 고하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몇 분도 걸리지 않을 작별인사 하고나서 예수님을 따르면 되지 않겠습니까?

시리아어로 된 신약 성서에는 '작별을 고하다'는 문장보다 다르게 해석되는 문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허락을 받다'입니다. 그리스어 신약 성서도 이 해석을 뒷받칩니다. 그저 작별을 구하고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허락을 받다'입니다. 중동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문맥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에게 허가를 받는 것 말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의 부모님은 나에게 대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에게 가서 먼저 허락을 받고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부모님이 동의하고 허락한다면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랍 기독교인 관점에서도 부모의 조언을 받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인생, 다양한 영역에서 말입니다. 한 가지만은 예외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주이자 주님으로 영접하기로 결정했다면, 누구의 조언도 따르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네가 나의 제자가 되고 싶다면 내 권위에 복종해야지, 너의 부모의 권위에 복종하면 안 된다. 네가 해야 할 일은 농부의 일과 같아서 집중력과 꾸준한 집중이 필요한 일이다. 뒤돌아보면 안 된다. 앞을 똑바로 쳐다보아야 된다. 준비가 되었느냐?"고 말씀하십니다.

눈여겨 볼 것은 예수님이 세 사람과 나눈 대화 끝에 그들의 대답이 무엇인지, 그 다음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의 요구에 응답했을까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감동되어 기록한 저자가 이 세 사람의 만남의 끝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는 형태로 남겨두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이 말씀을 읽거나 듣는 우리가 스스로 응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준비한 두 가지 질문을 함께 묵상했다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는 어떤 제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흥분되어 있으십니까? 헌신되어 있으십니까? 아니면 주저앉고 있습니까?"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교회로서 우리는 어떠한 제자들입니까? 사역을 위해 흥분돼 있습니까? 선교를 위해 헌신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주저앉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제자들을 육성하고 양육하고 세우고 있습니까?"입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그때는 이렇게 대답하세요!(What Would You Say?)

## 기독교인이 할러윈을 기념해야 할까?

많은 사람에게 할러윈은 단순히 파티를 열고, 연말 쇼핑 시즌을 시작하며, 사탕을 많이 먹는 그리 해롭지 않은 기회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해골, 마녀, 유령, 끔찍한 의상 등 어두운 것들을 기념하는 구실이 된다. 또 다른 이들에게는 심지어 악이나 죽음과 장난을 치는 방법이 된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러윈에 관한 진짜 질문은 우리가 실수로 마귀를 숭배하고 있는지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악에 대한 승리가 진리임을 선포하고 있는지다.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은 할러윈을 기념하면 안 된다. 그것은 악을 미화하는 이교도의 절기다”라고 말할 때,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첫째, 할러윈의 역사에 대해 흔히 주장되는 것은 잘못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할러윈이 ‘사원(Samhain)’이라는 이교 축제에서 유래했다고 말한다. 고대 드루이드들이 보름달 밑에서 인신 제사를 지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역사학자들, 심지어 많은 현대의 이교도들에 따르면, 이 이야기는 대부분 지어낸 것이다. 할러윈의 날짜와 이름, 심지어 죽음에 대한 강조까지 더 정확한 설명은 기독교 축일인 ‘모든 성인의 날(All Saints’ Day)’에 있다. 이날은 11월 1일에 기념되었고, ‘All Hallows(만성절)’이라고도 불렸다. 따라서 그 전날 밤인 10월 31일은 만성절 전날 밤, ‘All Hallows Eve’, 즉

‘할러윈(Halloween)’이 되었다. 영국에서는 분장하고 집마다 다니며 음식을 얻는 전통이 발전했다. ‘장난스러운 밤’이라는 개념은 사실 할러윈이 아니라 11월 5일 ‘가이 폭스 데이(Guy Fawkes Day)’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할러윈이 기독교적 연관성을 잃고, 오늘날 우리가 아는 과기스럽고 충치를 발생시키는 모습으로 변한 것은 1700년대 후반 이후의 일이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산타클로스가 사실상 상업적 판매와 깊은 관련이 있듯, 할러윈도 상업과 관련이 많았다. 마녀, 호박 등불, 거미줄, 해골 같은 장식들은 역사적 기원이 아니라 상업적 기원을 가진 것이다. 할러윈은 드루이드보다 백화점과 훨씬 많은 관련이 있다.

둘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의 모든 기념행사를 이끌어야 한다. 비록 할러윈이 고대 이교도의 부활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도덕적으로 해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수세기 동안 할러윈은 많은 죄악적이고, 파괴적인 행위들과 연관됐다. 여기에는 음란한 의상, 만취, 마약 남용, 기물 파손 등이 포함된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를 피하는 것은 옳다. 할러윈에 종종 나타나는 일반적인 추악함도 문제다. 살인과 절단을 모방하는 장식들은 혐오스럽고 무례하다. 우리가 집을 그런 것들로 장식해서는 안 된다. 그런 종류의 이미지를 TV에서는 나이 제한을 두지만, 이상하게도 문화적으

로는 현관에 전시하는 것을 허용한다. 할러윈은 파괴적이고 죄악적인 활동에 참여할 변명이 될 수 없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그분을 섬기며,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큰 계명에서 하루도 면제받지 않는다. 혐오스럽거나 지나치게 무서운 이미지는 결코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이 아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떻게 기념하든, 예수는 이 두 계명이 모든 우리의 행동을 다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할러윈은 이를 무시할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셋째, 악은 이미 패배한 원수다. <골로새서> 2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권세와 권력을 무장 해제시키셨다고 선포한다. 사실 그분은 십자가에서 그들을 공개적으로 구경거리로 만들며 승리하셨다.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예수는 사탄과 그의 세력을 패배시켰다. 물론 영적인 어둠의 세력은 실제로 존재한다.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그들은 패주 중에 있다. 그들의 권세는 예수가 부활하실 때 영원히 꺾였다. 더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들의 운명은 확정되었으며, 생명이 최종적으로 승리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보내는 메시지는 우리의 기념행사까지도 포함해서 예수의 승리를 선포해야 한다. 악, 죽음, 어둠을 미화해서는 안 된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올바른 기념 방식에 대

해 지침을 주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스도인들은 기념하는 것들이 악에 대해, 악을 이기신 구주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항상 고려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할러윈을 즐기는 것이 잘못이라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악의 세력을 조롱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즐거움은 항상 하나님과 이웃 사랑에 의해 이끌려야 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승리하신 분이 누구인지에 대해 진리를 선포해야 한다는 점이다.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은 할러윈을 기념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악을 미화하는 이교도의 절기다”라고 말할 때, 이 세 가지를 기억하라.

“할러윈의 역사에 대한 흔한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의 모든 기념행사를 이끌어야 한다.”

“악은 이미 패배한 원수다.”

원문: 콜슨 센터 유튜브 채널 ‘

What Would You Say?’



원문 영상 QR

###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자녀 양육

## 성경적 자아 정체성 가진 자녀로 양육하기



류현모 교수  
(온누리세계관학교,  
현대성윤리문화교육원)

고대로부터 인류가 품어온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이다. 이 질문은 인간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갈지를 결정 짓는 근본적인 존재론적 질문의 출발점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공교육은 이 궁극적 질문에 거의 관심을 두지 않거나, 때로는 성경의 진리와 정반대되는 대답을 가르친다. 세상의 철학이나 학문이 제시하는 답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에서 인생의 답을 찾아야 하며, 그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이다.

모든 부모는 자녀의 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진다. 그리스도인 부모라면 더욱 그렇다. 그 관심은 자녀 세대를 넘어 손자녀 세대까지 이어진다. 특히 아이들의 정체성 교육은 평생의 가치관과 행동 방향을 좌우하는 일이기에 성경을 잘 알고 자녀의 미래를 진심으로 염려하는 부모와 조부모가 직접 감당할 것을 하나님

도 요구하신다(신 6:4-9).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을 선포한다(창 1장).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빛과 만물, 그리고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선하고 아름답게 준비하신 후에, 그 창조의 절정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존귀하며, 비록 죄로 인해 타락했어도 창조주가 주신 인간의 존엄성은 사라지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그 존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는 확증이다. 성경은 또한 인간의 생명을 함부로 해치는 것은 죄임을 분명히 가르친다. 그러므로 부모와 조부모는 자녀가 어릴 때부터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가치를 성경 말씀으로 끊임없이 가르치고 삶으로 보여줘야 한다. 그렇게 자란 아이는 자신을 포함해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귀히 여기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성경은 또한 사람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음을 분명히 기록한다(창 1:27). 생물학적으로 성별은 성염색체로 결정된다. 남성은 XY, 여성은 XX 염색체를 지니며, 우리 몸의 50~100조 개 세포에 같은 유전정보가 존재한다. 외과적 성형이나 호르몬요법으로 외형을 바꿀 수 있어도 세포 속의 성염색체 정보는 변하지 않는다. 반대 성호르몬으로 부여받은 생

물학적 성징을 억제하고, 반대 성의 성징을 드러나게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성호르몬의 장기 투여는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결코 가벼운 선택이 될 수 없다.

그런데도 서구 사회는 한동안 ‘성별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라는 젠더주의 사상을 법과 제도로 강제해 왔다. 그 결과 수많은 청소년이 사춘기의 혼란 속에서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렸고, 성전환 이후 심각한 후회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다. 최근 북유럽, 영국, 미국 등에서는 부작용을 깨닫고 성전환 의료를 제한하거나 폐지하는 흐름이 확산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청소년 성전환을 주도하던 ‘타비스톡 젠더클리닉’이 폐쇄되었고, 미국 일부 주에서는 학부모 동의 없이 학생이 성별을 변경할 수 없도록 법이 강화되었다. 북유럽 국가들은 사춘기 차단제나 반대 성호르몬 투여보다 심리 상담과 정신과 치료를 우선하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위험성이 분명하고 그로 인해 폐지되어 가는 해외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길을 따라가려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영문 이름이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인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번 정부에서는 이전의 영

문 이름에 맞춰 ‘성평등가족부’로 부처명을 바꾸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이전에는 숨겨두었던 젠더주의 정책의 발톱을, 이제 숨기지 않고 드러내어 강력히 밀고 나가겠다는 선언이다. 이런 사회적, 법적 환경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내 자녀가 성전환하겠다고거나, 동성과 결혼하겠다고 선언하는 상황을 맞이하는 것이 필연적이다. 부모가 이 문제에 대비해 아이들의 정체성 교육에 힘을 쏟지 않는다면, 아이는 세상의 강한 흐름에 쉽게 휩쓸릴 수 없다. 이 시대 부모와 조부모는 깨어 있어야 한다. 아이들이 세상의 잘못된 사상에 흔들리지 않도록, 성경이 말하는 남녀의 질서와 하나님의 형상을 분명히 가르쳐야 한다. 진리는 단순히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부모의 삶 속에서 보여줄 때 더욱 깊이 새겨진다.

“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귀한 존재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아름답다.”

이 말이 가정에서 끊임없이 울려 퍼질 때, 아이들은 세상의 거짓과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성경적 자아 정체성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이끄는 든든한 기반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가장 값진 유산 아닐까?

# 하나님과 나, 이웃과의 영원한 관계 회복

러브소나타 시가 '세 겹줄, 삼포요시의 인생'  
현장 집회 1,676명, 온라인 중계 1,583명, 일본인 44명 결신



1. 러브소나타 시가에서 일본인 참가자들이 화관을 쓰고 즐거워하고 있다. 2. 일본인 참가자가 결신서를 작성하고 있다.

러브소나타 '시가'는 하나님과 나, 그리고 이웃의 영원한 관계 회복을 노래했다. 지난 10월 29일(수)과 30일(목) 러브소나타 '시가'가 '세 겹줄, 삼포요시의 인생' (전 4:12)을 주제로 모리야마 시민홀에서 울려 퍼졌다. 러브소나타 현장 집회 1,676명, 온라인 중계 1,583명이 참가했고, 일본인 참가자 44명이 결신했다.

그 시작은 10월 29일(수) 모리야마 시민홀 소홀에서 진행된 세미나였다. 일본 현지 사역자들을 대상으로 마츠바라 히로키 목사(작은생명의보금자리 대표), 김요성 목사(장애인사역본부)가 강의했고, 사랑챔버 오케스트라가 특선했다.

마츠바라 히로키牧사는 "매년 일본에서 약 20만 명의 태아가 낙태로 목숨을 잃고 있다"면서 "성경은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를 어기는 것은 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회에 장애나 난치병이 있는 가장 약한 이들을 향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교회는 약한 자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전해야 한다"고 권면했다.

김요성牧사는 '장애인과 함께 걷는 교회'를 주제로 강의했다. 요시하라 마나부牧사가 통역했다. 김牧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와 금식은 압박의 사슬을 끊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굶주린 이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이라며 "장애인을 섬기는 자리가 사랑의 실천이 이뤄지는 현장이고,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사명"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오후 7시에는 모리야마 시민홀 대홀에서 가스펠 나이트가 이어졌다. 뮤지컬, 시모자와 켄지 목사(뉴호프채플) 설교, 결단식 등

의 순으로 진행됐다. 시모자와 켄지牧사는 '우리들의 인생을 붙들고 인도하시는 분'을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통역은 신중환牧사가 했다. 시모자와 켄지牧사는 "나는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마음이 채워졌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면서 "이것이 바로 삼포요시, 하나님에게도 좋고, 나에게도 좋고, 이웃에게도 좋은 세계"라고 말했다.

10월 30일(목) 오전 11시, 비와코 호텔 루리홀에서 리더십 포럼을 개최했다. 이재훈 위임목사 인사, 강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사카오카 타카시 대표(미션 카라시데네) '생명이 빛나는 공생형 사회 실현을 위하여', 가수 윤형주 장로 '서로 사랑하는 것'을 주제로 강연했다. 각각 신중환牧사, 박현식牧사가 통역했다. 이재훈 위임목사는 "이곳에 모인 한 분 한 분

의 리더십이 사회에 건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이를 통해 한국과 일본이 더욱 변화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카오카 타카시 대표는 "그리스도인은 결과나 숫자에 눈을 돌리는 것을 멈춰야 한다"면서 "약함과 더불어 사는 것이 곧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며, 진정한 사랑의 가치가 실현되는 '생명이 빛나는 공생형 사회'를 실천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윤형주 장로는 "진정한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을 나눠줄 줄 안다"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가 미움과 시기, 증오와 열등감을 사랑과 용서로 바꿔 세상에 나누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오후 3시, 모리야마 시민홀 소홀에서 한일 봉사자 연합 오리엔테이션을 했다. 김창호 목사(러브소나타 본부장)가 환영 인사하고, 윤마리아 목사(브릿지33+)가 합심기도를 인도했다. 김창호牧사는 "러브소나타를 통해 한국과 일본 전역에서 생각지도 못한 예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할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저녁 7시, 모리야마 시민홀 대홀에서 러브소나타 본 집회의 막이 올랐다. 할렐루야 코러스, 사랑챔버 오케스트라, 가수 선예, CRUX, 김영미 권사 특선, 이재훈 위임목사 메시지, 결신의 초대, 회복의 세리머니 등의 순서가 이어졌다.

이재훈 위임목사는 '삼포요시와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牧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나 자신, 이웃과의 영원한 관계 회복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라며 "러브소나타 시가 참석자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삼포요시의 복을 누기를 바란다"고 축복했다.

/ 홍하영, 박지혜 기자

##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

### 러브소나타에서 옛 본 천국

"일본은 오랜 세월 이상승배가 만연하고, 복음 전파가 매우 힘든 땅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입니다. 이 땅의 영혼들과 이곳에서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는 목회자들을 응원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참가했습니다. 현실의 장벽이 높더라도 우리가 기도와 헌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언젠가는 일본 사람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리라는 소망을 품고 왔습니다."

이번 러브소나타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도 은혜, 이웃에게는 축복이 되는 '영적 삼포요시'를 몸소 경험하는 장(場)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시가 지역의 모든 교회가 교파를 초월해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했는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임을 깨달았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연합을 보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습니다.

저에게는 큰 영적 은혜를 누리신 시간이었습니다. 나라와 교파를 초월한 아름다운 연합 현장에 머물면서 천국을 잠시 보고 온 것 같습니다. 지역 교회들이 더욱 강력하게 결속하고,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이 지역 사회에 스며들 것을 확신합니다.

이웃(일본인)에게는 축복을 선물했습니다. 일본인들의 영혼의 곤고함과 외로움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영적 평안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랑과 치유, 성령의 바람이 일본 전역에 불어서 수많은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서 생각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최인기 집사  
(이수공동체)

###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러브소나타에 한 번도 참여한 적이 없어서 어떤 행사인지 무척 궁금했습니다. 그 궁금증이 행사장 입구에 들어서서는 순간 큰 환대를 받으며 감격으로 변했습니다. 많은 분이 손을 흔들어 주시고, '어서 오십시오!'라며 열렬히 환영해주셨는데 깊이 감동했습니다. 한국 성도님들의 환대는 단순한 친절을 넘어서 이웃을 사랑으로 대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엿보게 했습니다. 이 환대에서부터 저는 이번 러브소나타의 주제처럼 하나님과 나, 이웃 모두에게 좋은 '삼포요시'의 정신을 몸소 경험했습니다."

준비된 순서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모습도 발견했습니다. 특히 찬양의 아름다움에 흠뻑 취했는데,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음악으로 들렸습니다. 제게 큰 영적 은혜와 회복이 임했습니다. 함께 참가한 교

회 친구는 소프라노 김영미 권사님의 찬양과 간증에 큰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과 영혼을 깨우는 간증과 설교를 통해 모두 함께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시간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이 귀한 만남과 영적 삼포요시의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날을 위해 오랜 시간 노고를 아끼지 않은 한국과 일본의 모든 분께도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 일서> 4장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한국과 일본이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형제자매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카무라 시즈에 성도  
(히가시오미그리스도  
복음교회)

## ‘다음세대와 공유할 신앙의 유산’

## 세대를 잇는 믿음의 플랫폼!

11월 5~8일 ‘제3회 온누리 미래&amp;가족 축제’

김영욱 장로  
(미래성장분과위원회)

온누리교회 미래 성장분과위원회는 교회가 계승해야 할 영적 유산과 시대적 통찰을 바탕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미래 교회의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이

를 실천하기 위해서 2023년부터 성인과 대학 청년, 그리고 차세대까지 모든 세대, 모든 성도를 대상으로 ‘온누리 미래&가족 축제(Onnuri Future&Family Celebration, OFFC)’를 개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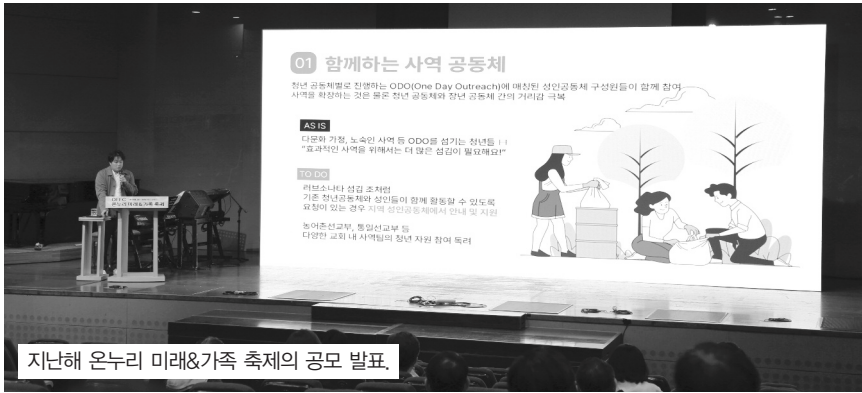
제1회 대회는 국가적 과제인 인구 감소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성도들과 함께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성경적, 교회적 실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생육하고 번성하라’(창 1:28)를 주제로 열렸다. 성인공동체와 대학 청년 세대가 한자리에 모여 미래 가정의 비전과 결혼, 출산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특히 공모전에 참여한 청년들의 세계관과 생각이 성인 리더십과 깊이 교감하며 세대 간 소통의 창이 된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두 번째 대회는 전 세계 교회가 직면한 청년 세대 감소와 공동체의 고령화 현실 속에서 다음세대를 세우는 교회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대회 주제는 ‘세대를 넘어 성장하는 교회’(엡 2:14)였다. 이재훈 위임목사의 주제강의 ‘미래공동체의 모습’을 비롯해 ‘교회의 미래 성장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패널토의, 청년 전도 소강의, 공동체 우수 사례 발표, 대학 청년 공모전 등이 이어지면서 다양한 세대가 함께 교회의 미래를 그려나갔다.

## 복음의 통로, 신앙의 울타리 ‘링크순’

제2회 대회에서 서초D공동체의 ‘링크(Link)순’이 큰 주목을 받았다. 서초D공동체는 2020년부터 청년부에서 공동체로 올라오는 젊은 부부들을 곧바로 일반 순에 배치하지 않고, 링크순을 운영했다.

링크순은 청년부 출신 부부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데, 처음 1년 동안은 청년부 출신 부부들만으로 구성된 순에 속해 성인공동체 적응을 돕는다. 청년부와 성인공동체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다. 삶의 배경과 신앙 여정이 유사한 이들이 함께 모여 신앙의 지속성과 공동체 소속감을 이어간다. 1년 후에는 두세 가정씩 일반 순에 편성되어 자연스럽게 성인공동체에 정착하도록 돕는다. 그 결과, 성인공동체 진입에 따르는 심리적 부



지난해 온누리 미래&amp;가족 축제의 공모 발표.

“온누리 미래&가족 축제(OFFC)는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 믿음의 전수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의 본질과 사명을 되새기며, 다음세대를 위해 무엇을 남길 것인지 성찰하는 축제가 되기를 바란다.”

담이 줄어들었고, 링크순 순장으로 세워진 젊은 리더들이 새로운 세대의 사역을 주도하는 긍정적인 순환이 일어났다. 서초D공동체에서는 매년 4~5개 링크순이 꾸준히 운영되고 있으며, 청년부에서 이어진 리더십이 끊기지 않고 다음세대를 이끌고 있다. 링크순 아이디어는 실제 사역 현장에 적용되어 2025년 3월 발간한 온누리 공동체 사역 지침서〈공동체를 새롭게, 순을 아름답게〉에서 ‘젊은 세대 정착을 위한 지침(링크 다락방 및 링크순 운영 방안)’으로 공식 반영되었다.

링크순의 정신은 다른 성인공동체로도 확산하고 있다. 강남E공동체는 ‘한 영혼을 향한 사람이 링크순의 미래를 세웁니다’라는 제목으로 젊은 세대를 향한 영적 연결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현재 약 600명의 식구가 함께하는 강남E공동체는 평균 연령이 60세에 이르지만, 젊은 부부 세대를 품기 위해 꾸준히 기도하며 링크순을 운영하고 있다. 한 개의 링크순이 40대 부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녀 양육과 신앙의 균형을 고민하는 부모들이 진솔한 나눔을 하고 있다.

강남E공동체 링크순 한 자매의 남편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공동체의 기도와 관심, 그리고 축구선교회를 통한 사랑의 섬김으로 마음 문을 열었고, 부부가 함께 예배와 봉사에 참여하는 가정으로 세워졌다. 이러한 영혼의 변화는 링크순이 단순한 모임을 넘어 복음의 통로이자, 다음세대를 품는 신앙적 울타리임을 보여준다. 강남E공동체는 앞으로 링크순을 10개로 확장해서 30~40대 부부들이 믿음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를 꿈꾸고 있다.

이처럼 온누리 미래&가족 축제(OFFC)를

통해 제시된 비전이 실제 교회 현장에서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행사를 넘어 ‘세대와 세대를 잇는 믿음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촌, 과천의왕, 동대문중앙, 일산파주, 마포, 용산, 강남E, 성북 공동체 등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조각들이 모여서 온누리교회의 미래 사역 방향을 구체적으로 그려가고 있다.

## 온 세대를 잇는 ‘거룩한 연결점’

온누리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제3회 온누리 미래&가족 축제(OFFC)가 ‘온누리 40년, 다음세대와 공유할 신앙의 유산’(롬 1:16)을 주제로 11월 5일(수)부터 8일(토)까지 양재온누리교회에서 열린다. 다음세대를 향한 신앙의 본질과 교회의 사명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다. 올해 온누리 미래&가족 축제(OFFC)는 믿음의 선배 세대가 걸어온 발자취를 되새기고, 청년과 다음세대가 그 유산을 이어 새롭게 ‘Acts29 비전’에 헌신하는 축제가 될 것이다.

축제 첫날인 11월 5일(수) 오후 7시 30분 양재온누리교회 사랑홀에서 드리는 ‘오픈예배’에서는 강부호 목사가 ‘믿음의 본질로’를 주제로 말씀을 전한다. 온누리교회 40년 여정에서 변하지 않는 복음의 중심을 회복하고, 모든 세대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며, 다시 믿음의 본질로 돌아가기를 도전하는 메시지가 선포될 예정이다.

11월 6일(목)과 7일(금)에는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사전 강의를 이어진다. 김지연 교수가 ‘하나님의 형상으로’를 주제로 성경적 세계관 속에서 인간의 정체성과 거룩함

의 회복을 다룬다. 특히 이 시대 공교육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정체성을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장선범 목사는 ‘행동하는 크리스천으로’를 주제로 교회를 분열시키고, 나약하게 하는 세속적 가치관에 대해 강의한다. 성도가 어떤 기준을 두고 믿음을 지켜가야 하는지 실천적 제자의 삶에 관해 전할 예정이다.

축제 마지막 날인 11월 8일(토) 오후 2시 양재온누리교회 기쁨홀에서는 이재훈 위임목사가 ‘마지막 세대에 교회가 지켜야 할 신앙의 본질’을 주제로 강의한다. 박태성 교수는 ‘다음세대와 공유할 신앙의 유산’ 설문 분석 결과를 발표한다. ‘Acts29, 청년이 쓰는 다음 40년’을 주제로 공모전도 열린다. 패널토의에서는 당회서기 이인용 장로가 사회를 보고, 이재훈 위임목사를 비롯해 하선희 대표, 민준호 대표, 김경훈 집사, 이중호 형제가 패널로 참석한다. 온누리교회의 신앙 유산과 다음세대를 위한 실제적 준비에 대해 깊이 있게 대화할 예정이다.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성가치관 교육’(에이랩 아카데미)도 한다. 강남D공동체에서 개강 및 종강예배에서 자녀들을 대상으로 이 교육을 실행한 바 있다. 공교육 현장에서 성적체성 교육 문제를 인지하고, 어린 자녀의 성경적 성가치관 교육에 관심 있는 성도들이 자녀 연령대에 따라 주기적으로 요청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온누리 미래&가족 축제(OFFC)는 부모와 자녀, 성인과 청년,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 믿음의 전수를 경험하는 시간으로 준비되고 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의 본질과 사명을 되새기며, 다음세대를 위해 무엇을 남길 것인지 성찰하는 축제가 되기를 바란다. 이번 축제를 계기로 온누리교회가 세대를 넘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전환점을 맞이하기를 기대한다. 말씀과 강의, 패널토의를 통해 믿음의 본질이 회복되고, 다음세대가 그 유산을 이어가도록 온 교회의 기도와 참여를 요청한다. 온 성도가 함께할 때 온누리 미래&가족 축제(OFFC)는 다음세대와 교회를 잇는 거룩한 연결점이 될 것이다.

제3회 온누리 미래&가족 축제(OFFC)를 통해 우리가 믿음이 본질로 돌아가고, 다음세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지며, 온 세대가 함께 ‘Acts29 비전’ 그리고 ‘다음 40년’을 써 내려가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기도한다.

‘온누리 미래&가족 축제(OFFC)’  
오픈예배: 11월 5일 양재 사랑홀  
사전강의: 11월 6~7일 유튜브  
OFFC: 11월 8일 양재 기쁨홀  
문의: 서빙고온누리교회 목회지원실



CGN이 제주도 여미지식물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CGN, 제주 여미지식물원과 업무협약 체결

### 기독교 가치 확산하는 창의적 협력 모델 기대

CGN이 제주도 여미지식물원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지난 10월 18일(토) 제주온누리교회에서 협약식이 있었다. 두 기관은 자연과 문화, 미디어의 상생을 목표로, 제주 지역 및 국내외에서 기독교 가치 확산을 위한 콘텐츠 제작과 공동 행사 기획 등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두

기관이 함께 프로그램 공동 제작, 환경·생태·신앙 테마 교육 및 체험 행사, 지역주민 참여 문화 캠페인 등을 할 예정이다.

남정욱 대표(여미지식물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아름다운 땅’이라는 의미가 있는 여미지식물원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이 울려

퍼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진국 대표(CGN)는 “아름다운 여미지식물원과 함께 시대 트렌드에 맞춘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노규석 목사(제주온누리교회)는 “여미지식물원과 CGN의 협력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 받기를 바란다”고 축복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 “일대일 DAY에 초대합니다”

### 11월 2일 오전 8시부터 서빙고온누리교회

온누리교회 양육의 핵심 DNA 일대일제자양육의 중요성을 알리는 ‘일대일 DAY’ 행사가 열린다. 11월 2일(일) 서빙고온누리교회 이천만 광장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어진다.

이날 행사에서는 모든 성도가 쉽

게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우수 양육자 시상식, 포토존 및 일대일제자양육 암송대회, 백일장, 일대일제자양육 상담 등을 한다.

문의: 02-3215-3122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 가정의 품 내어주는 하루

### 온누리울타리, 보육원 아동과 결연 행사

온누리울타리가 지난 10월 18일(토) 보육원(영락보린원, 성로원) 아동 결연 행사를 개최했다. 온누리울타리 소속 18가정(영락보린원 9가정, 성로원 9가정)이 참여했다.

이날 오전에는 영락보린원 아동들과 함께 키즈카페 방문, 식사 등을 하고, 오후에는 성로원에서 가정 결연 첫만남 행사를 진행했다. 자기 소개, 단체놀이, 기도 등의 순서가 이어졌다.

이수정 총무(온누리울타리)는 “부모의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아

이들에게 잠시나마 가정의 온기를 전할 수 있어 기뻐했다”면서 “더 많은 고아에게 가정의 품을 내어주는 길이 더 많이 열리기를 바란다”고 기도했다.

보육원 아동 결연은 부모의 부재, 보호자의 학대 및 방임 등의 이유로 보육원에 입소한 아동과 후원자가 일대일 혹은 일대다로 연결되어 정기적인 지원을 하는 봉사다. 온누리울타리 소속 40여 가정이 강남드림빌, 영락보린원, 성로원, 송죽원 아동들과 결연했다.

/ 홍하영 기자

## NGO 더멋진세상, 세네갈 기후스마트 농업 역량 강화 사업

NGO 더멋진세상이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와 협력해 세네갈에서 기후스마트농업(CSA) 역량 강화 사업을 하고 있다. 세네갈 생루이 지역 탈렌, 간디아에, 마카나 3개 마을에서 토마토, 고추, 감자 등 7개 작물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 재배기술과 병해충 관리, 수확 후 처리 등을 교육했다.

/ 홍하영 기자

## 책으로 만나는 예수님!

온누리교회 도서관에서 ‘2025 독후감 대회’를 개최한다. 11월 30일(일)까지 기독교 고전(예수의 생애)(찰스 디킨스)를 읽고 독후감을 제출하면 된다. 차세대는 두란노 판, 성인은 민음사 판을 추천한다. 독후감 분량은 200자 원고지 유년부 이하 3장 이상, 초등부 4장 이상, 소년부 5장 이상, 중고등부 6장 이상, 성인 7장 이상이다. 11월 30일(일)까지 온누리교회 도서관(온누리 청소년센터 3층 도서관)에 제출하면 된다.

책(예수의 생애)는 온누리교회 도서관에서 대출받거나 집에 있는 책을 읽으면 된다. 구매할 경우 도서할인쿠폰 5천 원을 지원한다(두란노서점에서만 구매 가능). 문의: 02-3215-3110

## 11월 첫째 주 ‘열린순예배’

### 모든 공동체, 순에서 기획 및 실행

11월 첫째 주, 온누리교회 모든 공동체와 순에서 ‘열린순예배’를 드린다. 열린순예배는 여러 사정으로 그동안 순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나 마음에 품고 기도하던 가족과 친구, 직장 동료 등 전도대상자를 초대해서 복음을 전하며 교제하는 시간이다. 영화관, 음식점, 카페 등

에서 자유롭게 순예배를 드리면 된다. ‘열린순예배 <가이드북>’을 하단 Q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열린순예배 <가이드북>에는 상세한 실행 방법 A타입과 B타입(각 38분, 85분 소요)이 담겨있다. 영상도 볼 수 있다.

/ 박지혜 기자



## 온누리교회-한반도평화연구원 특별공동포럼

### 11월 18일 오후 7시 온누리청소년센터 소극장

온누리교회와 한반도평화연구원 이 11월 18일(화) 오후 7시 온누리 청소년센터 3층 소극장에서 특별공동포럼을 개최한다. 주제는 ‘북한의 새로운 세대와 한국 교회의 선교 방향’이다. 현장 참가자에게는 행사자료집과 연구자료, 굿즈를 준다. 참가 신청은 하단 QR코드로 하면 된다. 한반도 통일과 선교에 관심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이번 특별공동포럼에서는 북한의 새로운 세대와 그에 따른 사회 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탈북 청년

들과 차세대에 대한 선교 방향을 모색한다. 조동준 원장(한반도평화연구원 원장,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개회사, 이재훈 위임목사 환영사, 노치형 목사(온누리교회 통일위원회 담당) 대표기도, 발표 및 토크쇼(전순영 통일선교팀장 사회, 최선경 교수 발표, 박민주 교수 발표, 이창현 교수 발표, 김해기 장로(온누리교회 통일위원회 위원장) 폐회사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문의: 010-5792-3290

/ 홍하영 기자



## 제17회 온누리 캠퍼스 한마음 축구대회

### 각 캠퍼스 연합과 세대 간 소통, 교제의 장

제17회 온누리 캠퍼스 한마음 축구대회가 10월 25일(토) 열렸다. 6개 캠퍼스에서 150명 이상이 참가했다. 이번 대회는 각 캠퍼스가 교제하며 연합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참가자들은 축구를 통해 세대 간 벽을

허물고, 소통하며 서로를 이해했다. 사역 관계자는 “온누리 캠퍼스 한마음 축구대회를 통해서 하나로 연합하고, 청년들과 기성세대가 함께 신앙의 기쁨을 나누는 감동이 있었다”고 말했다.

## ‘Blossom the nuribom’ 사진 스토리전

### 11월 14일 오전 11시, 15일 오전 10시 관악구청

양재 이웃사랑팀이 섬기는 누리봄이 ‘내가 이룬 순간들, 그 안의 빛’을 주제로 Blossom the nuribom 사진 스토리전을 개최한다.

11월 14일(금)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 15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악구청 갤러리 관악(관악구청 종합청사 2층)에서 열린다. 누리봄 가족들의 회복과 희망을 담은

사진을 관람할 수 있다.

누리봄은 가족폭력 피해 여성과 그 자녀들의 상처를 보듬고, 그들이 자립하도록 돕는 기관이다. 2024년 10월에는 온누리청소년센터에서 ‘마법의 지팡이, 어둠을 물리치다!’를 주제로 전시회를 개최했다.

후원계좌: 농협은행 301-0354-1238-01(누리봄)

<생명의 삶>  
QT 프리뷰  
(Preview)

QR코드를 찍으면 11월 첫째 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생명의 삶> 정기구독 신청



전도콜센터 02-3215-3377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우측 QR 코드를 찍으면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 영화 ‘무명(無名)’을 관람하고



/ 강준민 목사(미주 새생명비전교회)

예수님도, 우리도  
‘서로 연결하는 다리’

CGN 개국 20주년 기념 영화 ‘무명(無名)’을 미주 새생명비전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관람했다. 이 영화는 서울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에서 발견된 일본인 선교사 무덤에서 시작한다. ‘노리마츠 마사야스’와 ‘오다 나라지’라는 두 일본인 선교사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다. 그들은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를 찾아와 일본의 잘못을 참회하며 복음을 전했다.

두 선교사는 다리 역할을 했다. 영화 속 두 선교사의 후손이 남긴 “다리란 서로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다리의 역할 중 하나는 밝히는 것입니다”라는 이야기가 깊은 울림을 줬다. 다리의 노면(路面)은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도록 희생을 제공한다. 밟힘을 감수해야 다리 역할을 할 수 있고, 길이 될 수 있다. 두 선교사는 조선 땅에서 밟히고 또 밟히면서 복음을 전했다. 친히 밝히는 길이 되어서 예수님을 전하셨다. 가능한 자신의 이름과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했지만, 하나님은 두 분을 기억하셨고, 때가 되어 그 아름다운 삶이 세상에 드러났다.

서로를 연결해 주는 다리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네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기초(foundation)다. 기초가 의미하는 것은 신뢰다. 신뢰가

없으면 관계는 쉽게 무너진다. 둘째, 기둥(pillar)이다. 기둥은 존중을 의미한다. 무게를 떠받치는 기둥처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귀한 존재로 여길 때 관계가 지탱된다. 노리마츠 선교사는 한국인과 일본인의 정체성을 넘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강조했다. 셋째, 아치(arch)다. 다리의 양쪽을 연결하는 구조물처럼, 공감은 상대의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며, 무거운 짐을 함께 지는 나눔의 상징이다. 신뢰와 존중이 있어도 공감이 없으면 연결이 이루어질 수 없다. 넷째, 노면(deck)이다. 사람이나 차량이 지나가는 길의 표면이다. 노면이 깔리지 않은 다리는 소용이 없다. 노면은 누군가의 길이 되어주기 위해 밟히고 또 밟히는 희생을 의미한다.

예수님은 막힌 답을 허물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 주는 다리가 되시기 위해 오셨다. 십자가의 길은 희생의 길이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밝히면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무명의 선교사들처럼, 막힌 답을 허물고 서로를 연결해 주는 다리가 되기를 원하신다. 우리도 다리가 되어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를 소원한다.

## ■ 젊은부부학교 수료 간증



/ 지영은 성도(북누리공동체)

“예수님이 이번에도  
살리셨다”

나는 가까운 지인이든, 교회든 내 가정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털어놨을 때 긍정적인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 부부 이야기를 처음 만나는 조원들에게 나누는 게 가장 두려웠다. 그런데 친정 부모님에게도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는 내가 처음 만난 조원들에게 울면서 감정을 다 털어냈다.

젊은부부학교 스태프, 조장님 부부, 같은 조원 부부, 자녀부 스태프, 강사님들을 통해 우리 가정이 다시 일어나고, 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님이 남편과 가정이라는 나를 위해 이 모든 것을 준비해주셨다는 것을 느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려 거칠고, 날카로우며 남편도 찢어버리는 내 마음의 결이 조금은 부드러워진 듯싶다.

나는 17살에 네팔을 처음 가서 선교사가 되겠다 서원했다. 또 많은 꿈을 품었다. 네팔어를 익혀서 남편과 네팔어로 소통하고 싶었다. 시댁의 빚도 다 갚고, 나를 힘들게 했지만, 시부모님을 모시고 싶었다. 네팔로 돌아가서 선교하고 싶기도 했다. 자녀들이 가진 네팔 한두의 관습과 문화를 반드시 끊어버리겠다고 매일 울면서 기도했다. 남편의 손을 붙잡고 네팔을 살려야 한다고 말했었다.

이랬던 내가 결혼 전과 후가 너무 비참하게 달랐다. 억울함과 화만 가득 차 남편과 연합하기가 너무 싫었다. 남편은 결혼 이후 빛이 났지만, 나는 죽어갔다. “가난한 나라에서 온 남편을 잘 보듬어주고, 사랑해 주라”는 사람들의 비꼬는 말에 미처버릴 것 같았다. 세상에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내 앞에서 남편을 칭찬하는 사람이라고 여기기도 했었다.

젊은부부학교에서 내 분노와 억울함을 마무리 지으려고 했다. 이제 더는 사탄의 틈을 내주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다. 그 역사를 끝내 버리겠다 서원을 하나님 앞에서 선포했다. 젊은부부학교를 하는 동안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셨다. 분노와 억울함이 나도 모르게 가라앉았다. 지난날 하나님을 믿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기도하는 내가 더러운 생각을 품고 있었던 자책감에 힘들었다. 그런데 젊은부부학교에서 하나님이 그 마음도 가라앉혀 주셨다. 젊은부부학교에서 배운 내용과 하나님 앞에 고백한 내 마음 모두를 곱씹고, 남편에게도 말해주려 한다. 나 그리고 우리 부부, 우리 가정은 회복된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번에도 살리셨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 ■ 예수사랑부 캠프 참가 후기



/ 남주현 팀장(예수사랑부)

## 우리가 함께 누린 천국잔치

올해 예수사랑부 캠프에는 어느 해보다 많은 청년과 교사, 자원봉사자 155명이 참가했다. 캠프 주제는 ‘믿음의 모델 노아’였다.

첫날 ‘말씀대로 순종한 노아’ (창 6:11~22)를 주제로 예배드리고, 청년과 교사가 함께 방주모형을 만들었다. 통나무로 만들어진 예배당을 방주로 꾸미면서 청년들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입술로 믿음의 고백을 선포했다. 캠프 내내 장대비가 쏟아져서 청년들이 잔뜩 기대했던 야외 프로그램이 무산될까 마음 졸였는데, 수영, 무지개 만들기, 평강랜드 관람 등 야외활동 때에 맞춰 맑은 햇살이 비치고 비가 그쳤다. 하나님의 세밀한 보호하심에 감사했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창 6:5-8)를 주제로 두 번째 예배를 드리고는 코끼리, 호랑이, 기린, 독수리, 토끼, 사슴 등 다양한 동물로 분장했다. 기발하고 재미난 모습의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해 질 무렵 동물 분장을 한 지체 150여 명이 방주에 입장했다. 방주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사랑부 지체로 부르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기

도를 드렸다. 순별로 야심차게 준비한 장기자랑도 했다. 존귀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지어진 서로를 기뻐하며 즐겁게 교제했다.

둘째 날은 ‘무지개는 하나님의 약속’ (창 9:7~9)을 주제로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과란잔디밭에서 7개 순별로 빨주노초파남보 색깔의 티셔츠를 입고 인간 무지개를 만들어서 손을 흔들며 찬양했다. 공중에서 드론이 이 장면을 촬영했는데, 모두의 마음에 잊히지 않을 멋지고 아름다운 순간이었다. 예수사랑부 청년들은 1년 동안 캠프를 사모하고 기다린다. 이번 캠프는 이를 동안 노아의 믿음의 발자취를 밟으며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한 천국잔치였다. 하나님이 예수사랑부 지체들의 영혼 깊은 곳에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을 채워주셨다. 그 감동과 은혜 덕분에 하나님 나라를 더욱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다. 예수사랑부는 예수님 안에서 청년과 교사가 함께 걸어가는 사랑의 공동체다. 이 발걸음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계속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지체가 삶 속에서 매일 새롭게 경험하기를 소망한다.

## ■ 한국어선교학교 참가자 간증



/ 이선미 성도(수원온누리교회)

예배자, 전도자  
그리고 한국어 선교사

2021년 와이미션 강의를 들으면서 선교에 대한 나의 좁은 시각이 깨지고, 하나님 관점의 새로운 세계관을 가졌다. 선교는 특정인의 일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삶의 사명임을 깨닫고 한국어선교학교 과정을 수강했다.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은 모국어라 쉽게 생각했는데, 발음과 문법, 교육론 등을 압축적으로 배우는 게 쉽지 않았다. 그러나 시차를 넘어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수강생들을 보면서 도전을 받았고, 함께 외친 “나는 한국어 선교사다!”라는 다짐이 마음을 뜨겁게 했다. 수료 이후 한국어교원 자격 과정을 전문적으로 공부했다. 처음에는 이주민을 직접 가르칠 용기가 없었지만, 준비하면서 점차 생겼다. 이제 실천할 때라고 생각해서 교사로 지원했다. 그리고 케냐 자매와 몽골 자매를 만나 한글부터 회화 조금 단계까지 수업을 이어갔다. 두 자매 모두 교회를 다니고 있어서 예수님을 전하며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 대학교 어학교육원 한국어 강사로 일하게 하셨다. 이주민과 다문화가정을 섬기려는 마음

으로 시작한 한국어교원 과정이었었는데, 하나님이 직업의 길로도 인도하셨다. 지금 나는 대학교 어학당 두 곳과 외국인복지센터에서 다양한 국적의 유학생, 결혼이민자, 외국인 노동자 등 한국에 와 있는 이주민들을 만나고 있다. 일상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을 넘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자 한다. 그들의 한국 생활 어려움을 돕고, 어학당 학생들에게 찬양을 번역해서 들려주며 마음을 나누고 있다. 이 주민에 대한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한국에 있는 이주민들을 위한 센터 설립’이라는 비전도 생겼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상의 예배자, 복음을 전하는 일상의 전도자, 한국어 선교사로 살 것이다. <잠언> 16장 9절 말씀처럼, 앞으로 살도 인도해주실 하나님을 기대한다. 한국어선교는 단순히 한국어만 가르치는 일이 아니다.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이다. 우리 모두 각자의 달란트를 사용해서 선교의 삶을 살기를 권면한다. 우리가 일상과 직업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 결실을 인도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http://www.onnuri.org

국내 온누리교회

이재훈 위임목사

- 서빙교
- 박종길 목사 (02) 793-9686(대표)  
04428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 양재
- 강부호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31길 70  
햇불선교센터
- 부천
- 정재욱 목사 (032) 322-9686  
14503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 수원
- 김승훈 목사 (031) 895-6500  
1709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 대전
- 김상수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온누리빌딩  
3-6층
- 남양주
- 변대성 목사 (031) 515-3521~4(대표)  
12249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20-14
- 평택
- 신동식 목사 (031) 651-9680(대표)  
17866 경기도 평택시 신흥1로 2길 61 2층
- 인천
- 김승수 목사 (032) 437-9686(대표)  
21987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교육로 75
- 강릉
- 노희태 목사 (02) 475-9686  
05335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 양지
- 양재경 목사 (031) 331-8171  
17156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62번길 20

- 영종
- 도육환 목사 (032) 752-7937  
22377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로 49
- 제주
- 노규석 목사 (064) 794-8090  
6352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화역사로 601
- 안산 온누리M센터
- 김태완 목사 (031) 491-9650  
15243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

■ 기도처

- 태안온누리
- 최영민 목사 070-8627-7676  
충남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3길 10  
온누리교회 태안온누리
- 서산온누리
- 최영민 목사 (041) 665-9686  
충남 서산시 쌍연남3길 9 서산온누리교회
- 봉화온누리
- 임정순 권사 (054) 673-7428  
경북 봉화군 명호면 만리산길 613

■ AMA 형제교회

- 춘천 새순교회
- 임용성 목사 (033) 264-0291  
강원 춘천시 영서로 2000

■ AMA 협력교회

- 진새봄온누리
- 주수일 장로 (031) 767-2776  
경기도 광주시 조월읍 진새봄길 166

해외 온누리교회

■ 미서부

- 앨바인
- 박신웅 목사 1-949-261-9100  
17200 Jamboree, Irvine CA 92614 U.S.A.
- 로스앤젤레스
- 이정영 목사 1-213-382-5658  
743 South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67, USA
- 샌디에이고
- 1-619-847-4147  
899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
- 산타모니카
- 정장철 목사 1-213-235-5791  
1420 Yale St, Santa Monica,  
CA 90404
- 괌
- 김형철 목사 1-671-734-8522  
155 Father Duenas St, Mangilao Guam 96913

■ 미동부

- 보스턴
- 김철진 목사  
1-781-933-7044  
73 pine st, Woburn MA 01801 U.S.A.
- 시카고
- 이종재 목사 1-630-753-9191  
1433 NMain St, Naperville IL 60563
- 뉴욕IN2
- 심상현 목사 1-212-427-2055  
35 W 31st street 5fl, New York, NY, 10001
- 뉴저지
- Marc Choi 목사 1-201-461-4010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 미북부

- 포틀랜드
- 이성권 목사 1-503-628-2000  
1965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 앵커리지
- 시재범 목사 1-907-569-9191  
4801 old seward HWY Anchorage, AK 99503
- 밴쿠버
- 이재정 목사 1-604-888-0092  
19711 86th Ave,  
Langley, BC V2Y 1Z5 Canada  
Worship: Pacific Academy Auditorium 10238  
168th Street, Surrey

■ 오세아니아

- 시드니
- 전현규 목사 61-2-9649-1180  
18 Main Ave, Lidcombe NSW 2141 Australia
- 오클랜드
- 조준목 목사 64-21-0810-3132  
470 Glenfield Rd, Glenfield Auckland  
New zealand
- 홍콩
- 문영재 목사 852-2506-0089  
6/F, Tower 1, South Seas Centre, 75 Mody R.d,  
Tsim

■ 일본

- 동경
- 후쿠자와 마키토 목사 81-3-5937-3210  
(169-0074) 3-39-7 Kitashinjuku , Shinjuku-ku,  
Tokyo, Japan
- 오사카
- 문봉주 목사 81-6-6121-2015

(542-0083) Naniwa 3F 1-3-19 Higasinsaisabasi  
Chuoku Osakasi Japan

- 우에다
- 하카마타 미키 목사 81-26-821-4566  
(386-0032)Nagano-ken Ueda-shi Suwagata 137  
7-64 JAPAN
- 요코하마
- 시즈야마 신이치 목사 81-45-641-6468  
(231-0012)Yaomasa Bldg4F3-63 Aioi-cho, Nak  
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 야치오
- 요시하라 마나부 목사 81-47-482-1299  
(276-0045)832-2 Oowada, Yachiyo-shi, Chiba-  
ken, JAPAN
- 나고야
- 정호석 목사 81-52-938-5011  
(454-0974) AICHI-KEN NAGOYA-CI NAKAGA  
WA-KU SHIMAI-CHO61 EHWA DAIAMOND  
2F
- 교토
- 권영환 목사 81-75-748-9303  
(615-0854)Nisikoyogoku Tsutsumisotocho  
1-4(1F&2F),ukyo-ku, Kyoto-si

■ 중동

- 아부다비
- 김도균 목사 971-56-385-4238  
villa no.23 next to Bright Beginning Nursery,  
25th street, Al Mushrif Abu Dhabi, UAE

■ 동남아시아

- 베트남
- 이길탁 목사 84-8-5412-2773  
3SL 20-1 Grandveiw C, Phu My Hung, Q7, HCMC,  
Vietnam

[illegible]

**광고**

**은누리선교재단 보훈 입찰공고**

내용: 은누리선교재단 재난종합, 영양배상, 가스배상 전속계약업체 선정  
계약: 2026년 1월 1일~2027년 1월 1일(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  
대상: 입찰 물건 84건  
방법: 일반경쟁입찰  
가격: 대한민국보훈협회의 정회원으로 자금여력비율 180% 이상인 업체  
절차: 서류 마감(11월 13일 16시까지), 결과 통보(11월 18일)  
\*세부 안내 및 일정은 BNIS 입찰정보 참조

**은누리세라핌합창단 단원(초·중등) 모집**

대상: 초1~중1(타캠퍼스, 타교인 지원 가능)  
연습: 매주 토요일 오후 1~4시 은누리청소년센터 3층(1, 3주 주  
일 연습 오후 1시 30분~3시)  
지휘: 최영은 성가사  
문의: 김유미(010-3923-0416)

**온누리신문**  
등록번호 다-3802호  
발행인: 이재훈  
편집국장: 이인웅  
편집부장: 김남원  
기자: 김현준, 홍하영, 박지혜  
140-026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전화: 02-3215-3195 홈페이지: [news.onnuri.org](http://news.onnuri.org)  
온누리신문은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복지재단**

**은누리복지재단 후원계좌**  
 하나는행/573-910015-15105/(복)은누리복지재단  
 문의: 황찬범 팀장(02-3215-3413)

**은누리요양센터 이미음 자원봉사자 모집**  
 대상: 차매, 중풍 등 입소 어르신(이부 미용실 이용 어려움 외상 어르신)  
 내용: 이미음 봉사 (개인, 단체 가능)  
 자격: 이미음 자격증 소지자  
 일시: 평일 09:30~11:30 또는 13:30~16:00  
 장소: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은누리교회 부근)  
 신청 및 문의: 매일한 사회복지사(070-4489-6880)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기간: 2025년 12월/까지  
 모집: 자원봉사활동을 희망하는 누구나  
 내용: 경로식당 배식 및 정결 봉사  
 신청: VMS 신청, 우선  
 문의: 우선자 (이혜남) 070-704-6100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내용: 경로식당 배식 중, 식식 봉사자 모집(개인, 단체 가능)  
 일시: 중식(11:00~14:00), 석식(16:30~18:30)  
 문의: 강재준 사회복지사(02-3474-6080)  
 ※정신신체적 제공, 정기봉사자 우대

**시립서울역쪽방상담소 우리동네구강관리플러스센터 봉사자 모집**  
 내용: 치과 의료진 어시스트 및 안내  
 자격: 치과위생사 또는 치과위생학과 학생  
 시간: 오전(10시~12시), 오후 (14시~17시) / 요일 및 시간 협의  
 문의: 전현미 치과위생사(070-4153-4547)

재정

은누리교회협의 현금 메뉴에서 모바일헌  
금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애플의 앱스토어와 구글의 플레이스토  
어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세요.

**헌금안내인 안내**

심일조헌금: 하나은행 573-810034-10105  
주일헌금: 하나은행 573-910018-28205  
감사헌금: 하나은행 573-910018-27605  
해외선교헌금: 하나은행 573-810034-09105  
비전헌금: 하나은행 573-910009-96104  
절기헌금: 하나은행 573-910009-99004



**상담**

**서빙고 은누리 상담실(청소년수련관 3층)**  
 상담접수: 홈페이지 신청, 전화, 02-793-2987/010-4215-3675  
 상담 시간: 화~금(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오전 10시~오후 3시)  
 면접 상담: 개인, 부부, 아동청소년가족, 모래놀이치료, 놀이치료  
 PCIT(부모아동성호성호훈련), 영역 상담, 예약 필수  
 심리검사와 동성, 기질, 진로 및 학습유형 등

**양재 은누리상담센터(원형커피숍 자동문 안쪽)**  
 상담접수: 02-570-7536, 010-4684-7536(문자전용),  
 상담예약 필수  
 개인, 부부, 가족, 아동, 청소년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유: 오전 10시~오후 3시  
 각종 심리검사와 질 집단, 자유프로그램  
 법률 상담: 주일만 가능(예약필수)  
 세무 상담: 월세 주일만 가능(예약필수)

## 소천

10/24(금) 관악극전 김성태 책임선교사 모친상 고 박혜원  
 10/25(토) 양재A 김민숙 권사 부친상 고 김정국  
 10/26(일) 강남D 이자영 성도 부친상 고 이영선  
 10/26(일) 강남B 최정원 집사 부친상 고 최창현  
 10/26(일) 이수 박정수 권사 자녀상 고 김원진  
 10/26(일) 여호수아 합심미 성도 모친상 고 유병우  
 10/27(월) 여호수아 홍기표 성도 부친상 고 홍순호  
 10/27(월) 영등포구로 손경선 성도 모친상 고 박정자  
 10/27(월) 고양은평 김진아 성도 부친상, 황찬우 성도  
     빙부상 고 김경태  
 10/27(월) 강남E 양미혜 권사 부군상 고 홍순호  
 10/28(화) 강남B 김미나 집사 부친상 고 김영래  
 10/28(화) 동대문중앙 김선옥 성도 배우자상 고 정광진  
 10/29(수) OCC 원희룡 성도 부친상, 강윤형 성도 시부상  
     고 원응두  
 10/30(목) 중종로 강은주 권사 시모상 고 박용주  
 10/30(목) 마포 신혜선 성도 부친상 고 신관섭  
 10/30(목) 성북 김진자 권사 시모상 고 배순애  
 10/31(금) 강촌 김윤재 집사 부친상, 조정희 권사 시부상  
     고 김성배  
 10/31(금) 양천 이수연 성도 모친상, 이시훈 성도 빙모상  
     고 임도경  
 10/31(금) 양천 오은주 책임선교사 부친상, 이도현 책임선교  
     사 빙부상 고 오원섭